

부활절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4<sup>TH</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4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79 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통일33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8 번 시편 (Psalm) 3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 (Exodus) 21:12-27</b>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의지하고 순종하면”	찬양대
설 교 Sermon	<b>“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Eye for Eye, Tooth for Tooth)</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말씀 앞에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63 장 “이 세상 험하고” (통일19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만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칭찬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허했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아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소원하오니,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4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개역개정 **출21:23-25**)

“But if there is serious injury, you are to take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NIV **Exodus 21:23-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30 (주일)	5/1 (월)	5/2 (화)	5/3 (수)	5/4 (목)	5/5 (금)	5/6 (토)
본문	민7 시42,43 아5 히5	민8 시44 아6 히6	민9 시45 아7 히7	민10 시46,47 아8 히8	민11 시48 사1 히9	민12,13 시49 사2 히10	민14 시50 사3,4 히1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3수 오후7:30)	이성우 장로 – “쓰임 받을 그릇” (딤후 2:19-21)
토요 새벽기도회(5/6토 오전6:30)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사119:17-24)

지난 주일(4/23)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35)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출애굽기 21:1-11)

출애굽 사건은 (한 마디로) 애굽의 종살이로 부터의 자유와 해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 역시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안에서는 빛을 진 사람이 제때 빛을 갠지 못하여, (자신의) 몸으로 (대신) 빛을 갠지 위해 종살이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6년 동안 종으로 섬긴 후, 7년 췌가 되면, 자유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도 평생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출21: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사랑하여, 자원함으로,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종이 되려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고, 2)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스스로 자원할 때 뿐이며, 또한 3) 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종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제럴드 샷처 목사님도 자신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주어집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보십시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뚫는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사랑하여, 자원함으로, 자유케 되는”것임을 늘 기억하여, 우리도 진정한 주의 종으로, 평생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